

◆ EIB, 유고연방의 도로 보수 및 중소기업 지원에 1억 1,500만 유로 지원

유럽투자은행(EIB)은 최근 유고연방공화국의 도로 보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1억 1,500만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중 9,500만 유로는 오랜 내전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세르비아의 주요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총 연장 864km)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 지원은 유고연방공화국의 도로망을 개선하기 위한 유럽투자은행의 장기 도로 개·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총 연장 864km의 도로를 보수할 예정인데, 북부의 크로아티아 및 헝가리와 남부의 마케도니아 및 불가리아를 X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중심노선과 함께 루마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의 주변 국가 및 연방내 몬테네그로 등지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가 그

대상이다. EBRD도 동 지원에 동참하여 약 7,600만 유로를 동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EIB는 유고중앙은행(NB)에 대해 2,000만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최근 결정하였는데, 유고중앙은행은 동 자금을 자국내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장기간에 걸친 내전의 결과로 중단되었던 EIB의 對유고연방공화국 지원이 지난 2001년 12월 재개된 이래, 유고연방공화국의 교통·운송 부문에 대한 EIB의 지원 규모는 2억 2,600만 유로에 달하고 있다.

【金基相】